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6)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 / 214-534-7141)

끝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는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로마서 8:13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몸의 행실, 육체의 일들을 죽이고, 죄악된 행실을 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들을 짓지 않고 참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나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영으로써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앞 구절들처럼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해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하였다. 물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행실을 끊고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은 이미 언급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 곧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요 6:63)라고 하신 그 영을 가리킨다고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해줌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끊지 못하는 죄와 습관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이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O OO아! 너의 옛날의 정욕과 욕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못박혀 죽었다!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너인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롬 6:21) '옛사람처럼 죄의 본성과 습관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생명을 죽이는 일인데 그 부끄러운 일을 계속 고집하려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나도 그와 함께 죽은 것인데 더 이상 내가 죄의 생각과 욕망과 습관에 종노릇해서는 안 되지!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나에게 선포하고 주장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다. 그럴 때 그 영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죄악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것이다.

아직도 죄인처럼 살고 죄책감에서 억눌려 사는 우리라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 나는 새 사람이야! 옛날의 내가 아니지! 예전 것은 다 지나갔고 나는 이미 새 것이 되었어! 하나님도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죄책감에서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되지!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또 앞으로 더욱 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니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거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나는 비결이다.

더군다나 롬 8:11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사망가운데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도 부활케 하시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죽어가는 몸이, 고질적인 불치의 병도 고침 받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성령님과 영의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마 8:17)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동하면 죽을 몸도 살아나는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을 좇아 살며 영의 생

각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과 평안과 부활과 치유와 새 생활이다. 2016년도 새해에는 이런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란다.